

갈수록 빼빼한 분, 몸이 힘들어 못 먹는 분...단백질 흡수해야 산다! 마른 몸은 위험하다

“ 자기 몸에 맞는 체중을 되찾고, 힘든 몸에 회복의 기운을 넣는다! ”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 식품보건학부 정용진 교수입니다. 30년 동안 발효공학을 연구해온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공력'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지금 (썩푸른친구들과 함께 '건강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빼빼 마른 분들과 몸이 힘든 분들에게 '하루공력과' 효소력'을 함께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나이 든 분들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마르는 건 근육이 줄기 때문

나이 든 분들은 자꾸 살이 빠집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살이 빠지면서 휘청거립니다. 정확히 말해 살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40대 이후부터 근육은 매년 1%씩 빠집니다. 지난해 강북삼성병원은 마른 사람의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53%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른 사람은 비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게 적으니 당연히 기력이 빠져나갑니다. 머지않아 가족의 수발을 받으며 살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은 젊은 사람도 분해·흡수하기 힘든 영양소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더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단백 영양식을 먹어도 속만 불편해 지죠.

마른 분보다 단백질이 더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몸이 힘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잘 먹어야 삽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고기 한 점만 먹어도 속이 뒤집힙니다.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고 몸은 더 쇠약해집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고통이지요. 이럴 땐 속 편하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시급합니다.

국내 최고 발효공학자, 10년 만에 개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 '하루공력'을 만들었습니다. '하루공력'은 발효공학자의 명예를 건 필생의 과업이었습니다. 콩을 발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콩 속에 가득한 단백질이 아미노산

으로 분해돼, 먹으면 바로 근육으로 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발효해야 아미노산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약전고투 끝에 저분자발효공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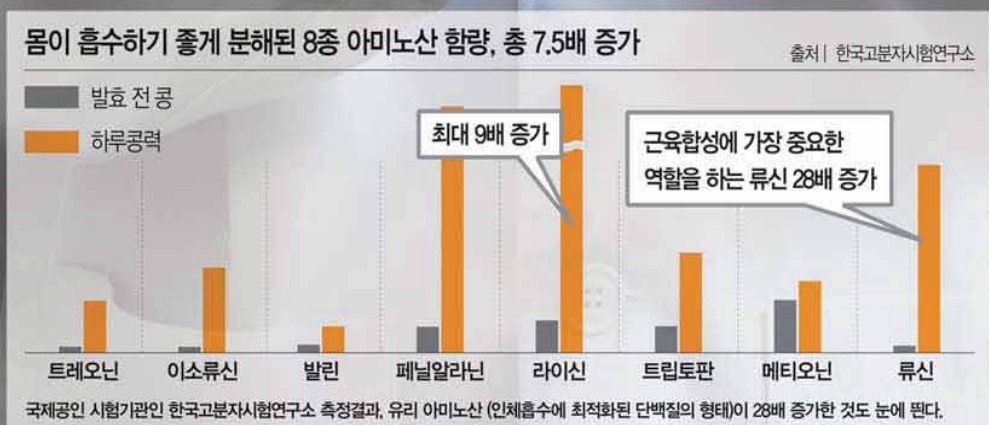
나이 든 분들에게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몸을 산화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높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아무 문제없이 몸을 탄탄하게 만듭니다. 그중에서도 콩은 모든 식품 중 가장 우수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을 제대로 발효한 '하루공력'은 단백질 흡수율이 발효 전 콩보다 7.5배 높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류신(Leucine)은 발효 전 콩의 28배입니다. 게다가 '하루공력'의 원료는 보존제나 유전자조작 걱정이 없는 순수 국내산 콩입니다.

10만 고객의 호응, 재구매율 1위

'건강체중 프로그램'은 '하루공력'과 함께 '효소력'을 병행합니다. 빼빼 마르거나 약한 분들은 대부분 속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효소 속을 회복시키면서 '하루공력'을 투입하면 위나 흡수력이 좋아 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효소력'은 음식의 영양분을 잘 분해·흡수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곡물효소입니다. 그래서 '하루공력'과 '효소력'은 완벽한 짝입니다. '건강체중 프로그램'은 10만 고객의 호응 속에서 재구매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제품입니다.

마른 분들은 체중이 1kg만 불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몸이 힘든 분들은 단백질을 조금만 더 흡수해도 희망이 생깁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전에 '건강체중 프로그램'으로 몸을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주문전화 080_745_9230 www.ilove62.com



건강체중 프로그램

하루공력 1박스 + 효소력 1박스 = 1세트 ₩174,000

효소력 4대 특곡물을 100% 발효한 고강도 곡물효소 박스(3g x 45포) ₩55,000

하루공력 주니어용, 대두 등을 발효, 흡수력 높은 발효단백질, 1박스(30g x 30포) ₩119,000



2세트 구매시 ₩348,000 → ₩305,000
43,000원 할인

당일 구매고객 특별 행사

오늘 '건강체중 프로그램' 구매시 약한 속을 보호하는 '효소력' 20포와 고급 물병 증정



주문전화 | 공유일 상담 가능
080_745_9230



'하루공력'의 자존심, 대한민국 최고의 콩!

경북 상주시 신동리 들판은 봄부터 가을까지 초록의 바다. 눈 닿는 곳마다 푸른 앞들이 대지를 뒤덮고, 그 위를 메뚜기들이 뛰어다닌다. 이곳은 '하루공력'의 원료를 재배하는 콩밭이다.

쌀의 고향 상주에서도 신동리 들판은 가장 비옥한 곳이다. 낙동강이 날라 준 사질토 덕분에 이곳의 농작물은 맛

부터 다르다. 사질토의 영양분을 흠뻑 흡수한 콩들은 어느 곳보다 싹하다.

콩 한알 한알은 모두 농부의 땀방울이다. 이주호씨와 김장기씨는 콩밭 50마지기(1만평)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다. 하지 무렵 씨를 뿌리고 10월말 수확할 때까지 농부들은 병충해 걱정에 제대로 잠을 잔 적 없다. 이렇게 힘들게

키워드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산 콩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콩은 농부들의 희망이자 삶의 이유다.

'하루공력'은 신동리 콩 중에서 최상급 콩으로 만든다. 1차로 농부들이 골라낸 콩을 선별기에 넣고 최고의 콩만 골라낸다. 콩밭에서 발효실로 갈 때까지 어떤 화학약품도 사용되지 않는다.